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총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90년도 아시아선교대회 개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충현교회·한국복음주의협의회 공동 주관

아시아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지난 2세기 동안 서양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였다.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아시아복음주의협의회(회장 조수아 쓰다다 목사)가 주관하고,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준곤 목사)와 충현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세계선교는 우리가 (World Mission : The Asian Challenge)"라는 주제 아래 90년도 아시아선교대회를 오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개최한다.

아시아선교대회는 지난날 아시아에서의 선교사역을 검토하고 현재의 필요를 분석, 조정하여 아시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아시아 교회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 의식을 고취시켜 선교사역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정보교환 및 제반 사항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여 교회와 선교단

목회자 단신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⑤

사랑하는 형제들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당 주변으로 몰려드는 수천대의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정성과 사랑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고 계신 차량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여러분은 일편단심 성도들의 발을 닦는 심정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부터 비나 눈이 내리는 때엔 예배 준비실에서 커튼을 몇번씩 열어보며 성도님들이 교회오시기에 얼마나 힘이 들까를 애타하는 목사의 심정이라도 알아 주시는 듯 교회로 향해 들어오는 차량과 홍수처럼 밀려오는 성도들을 기쁨과 감사로 맞아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차량위원이 되신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봉사를 착각하셨는지 질서를 요구하는 위원들께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하대하는 어투로 투정까지 부렸다

는 애기도 들었습니다. 며칠 전 폭설로 도로가 차단되고 교회당 앞마당은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상태에서 주일을 맞게 되어 참으로 당황하던 차에 직원과 고용인의 노동력으로 감당기 어려운 주변 마당과 도로의 얼음덩이들을 여러분이 토요일 오후에 오시어 모조리 정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눈사울이 뜨거울 만큼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형제들여,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듯 충현의 가족 모두가 이토록 보이지 않게 서로 섬기는 교회를 이룰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온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2월 11일
이중윤 목사

대학부·청년부 겨울 계절학교

대학 "어떻게 살 것인가" 2.12~15

청년 "기독교청년과 역사" 2.17~18

대학부 겨울 계절학교가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충현 기도원에서 열린다. 하나님께서 일터로주신 세상 속에서 천국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인간관, 교회관, 세계관, 직업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중윤 목사, 김은태 목사, 권혁선 목사(희망교회), 정홍식 집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리게 된다.

한편 청년2부는 오는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독교청년과 역사"를 주제로 동기수련회를 개최한다.

이 수련회에서 성주진 교수(청년2부지도합동신학원)가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원종천 교수(합동신학원)가 "교회사와 역사"를, 김경우 교수(충신대)가 "종말론과 역사"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다. 뜻 있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명분이진실을 가리는 혼란스런 시대에 올바른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도전과 다짐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충현장학생 선발

우리 교회는, 신앙이 독실하고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무흠세례교인으로써 천국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를 90년도 전반기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장학금 지급을 바라는 학생들은 장학금청원서, 이력서(사진 첨부), 성적증명서, 학교 비장학생 확인서 및 비과제증명서를 다음 주(2월 18일) 까지 제출하면 장학회가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를 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위임목사 동정

남·여전도회 임원수련회 강의

대학부 겨울 계절학교에서 강의

충현유치원 졸업예배에서 설교

이중윤 위임목사는 13일 오후 2시에 충현기도원에서 열리는 대학부 겨울계절학교에 참석하여 강의를 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저녁 7시에는 갈릴리 홀에서 열리는 남·여전도회의 임원수련회에서 전도회의 활성화가 교회 부흥의 초석임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15일에는 제5회 충현유치원의 졸업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이 예배에서 이목사는 어린 영혼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충현새가족 환영회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4일 주일 4부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부의 주관으로 갈릴리 홀에서 12월과 1월에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집회를 가졌다.

200명의 새가족이 모인 이 환영회에서 이중윤 위임목사는 온 교우들을 대신하여 환영인사를 하면서 충현교회가 설립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부흥된 모습과 교역자, 장로, 권사, 기타 구역 일꾼들을 새가족들에게 소개했다. 또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중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봉사의 현장을 찾아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교계에서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향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충현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의 가족대표들이 나와 자신들의 가정을 소개하는 화기애애

한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위주한 교회라는 주변 성도들의 권유를 받고 등록했거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터전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충현교회를 찾게 된 사람들로서, 앞으로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의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교회안내

주일예배 I부: 오전 7시 II부: 오전 9시
III부: 오전 11시 IV부: 오후 1시
English Service: 오전 9시
찬양예배: 오후 7시
※ III부에는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 통역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영어부, 유치부, 초등 I~6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1~2부, 장년1~4부, 소망부, 영어부, 직장전도부, 새가족부, 새가족부, 사랑부, 예배다부, 탁아부, 살롱경로대학

방송설교 기독교방송(837KHz) 주일 오후 7시

신앙 화요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55-6684)

상 담 주일 오후 1시~오후 5시
일단 수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 566-5122)

의료상담 주일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세무 셋째 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성경 강해

귀한 초청, 큰 약속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요 7:37-39)

이 중 윤 목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초청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만찬에 초대받게 되면 기쁘지만 부고를 받은 경우에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법원의 초청장을 받으면 괴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는 일이 반드시 즐겁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초청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때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이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7일동안 실로암에서 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쁨에 목이 마릅니다. 정말 기쁨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극장이나 놀이터에도 가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돈도 써보고 지식과 명예도 얻어 보았으나 내게는 아직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쁨에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부에 목이 마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낮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애를 씁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를 갈망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다른 곳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에 목마른 자도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은 만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구약성경을 모형으로 하여 구약과 예수님을 대조시킨 구절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성전임을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참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본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시며 참 구리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생수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지만 참 구름기둥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 줍니다. 1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 어린양이 대신하여 죽었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마시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샘에서 물을 마시듯이, 주님의 배에서부터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셨습니다”(시 40:8)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인격에서부터 흘러나온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못지 않게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못 활용하면 그 믿음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2. 큰 약속

초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44장 3절, 55장 1절과 같은 곳에 생수가 흘러 나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기록된 ‘흘러 나리라’는 표현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 중심적인 것으로 확장되는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강이 되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나눠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주고 생명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큰 약속, 큰 은혜를 받은 신자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만이 성령의 역사 체험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잔치를 벌이고여덟째 되는 날에 물길은 예식을 끝냅니다. 이 초막절의 끝날 곧 큰 잔치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귀한 초청

첫째, 청함을 받은 자

초청장은 아무나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을 할 때도 초청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면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메대 사람, 파사 사람, 애굽 사람 등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등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을 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초청하시면서 “목마르거든”이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선과 거룩과 순결함에 목이 마른 자들만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에 목이 마른 자, 의로운 것에 목마른 사람만 내게로 오라고 하신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냥 목마른 사람은 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목마른 자가 되어야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갈망의 대상이 무엇이든간에 우리들은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무엇인가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 애타는 갈증이 없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원이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기도원을 개량해서 수련장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는 옛날 같이 나무뿌리를 붙들고 기도할 만한 기도제목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잘 사니까요.” 그분의 얘기는 이제는 밭재워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기도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서양교회들은 오늘날 거대한 건물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강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갈증을 느끼고 물 한모금 달라고 애원하는 심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초청한 자

예수님께서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요 7:37).

‘와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게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말씀 통해 성숙한 신자로 성장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의 일부를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으로만 우리들의 갈증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요 생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성도들에게만 성령이 찾아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더욱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물든 동산의 초목이 무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운동은 거듭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은 귀한 초청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목마른 자가 되어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 나온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남았습니다. 우리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여 다른 사람들도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 교육현장을 찾아서

섬기는자의 모든 것 배우는 피택 안수집사·권사교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 안수집사와 권사를 피택하는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투표결과 피택된 20명의 안수집사 후보와 40명의 권사 후보에 대한 교육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번 교육은 10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안수 집사회는 매주 화요일, 권사회는 매주 금요일에 실시되는데, 집사와 권사의 위치, 청지기론, 장로교의 기본교리, 예배론 등 교회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게 된다.

안수집사 교육에 참가하고 계시는 손철 집사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안수집사의 역할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교회와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또 앞으로 안수집사의 책임을 맡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하셨다.

한편 권사의 훈련을 받고 계시는 홍양례



권사는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고 하시면서, 구역내에서의 권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안수집사 안수식 및 권사 취임식은 90년 4월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 독자의 글

나의 소망 나의 기도

오 순 회 성도 (에바다부 교사)

가만히 주변을 응시하면 곳곳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으로 많다. 두 손 모으고 무언가 절절하게 토해내며 우러르는 기도자의 모습, 어두움을 밝히며 서 있는 커튼 가로등 하나에서도, 올려다 본 하늘엔 별빛 하나 보이지 않고 검푸른 회색빛만이 덩그러니 게 가슴을 시리게 할 때도 감동은 남다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닌 한계의 벽을 허물며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대할 때는 더욱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잠시 멈칫하게 된다. 일상 사용하는 언어로서가 아니라 손과 몸,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 대화가 가능한 에바다부 형제 자매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캄캄한 세계에서 그들에게 빛의 단어는 수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배움은 수화가 지닌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 한가지에 의해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의사소통의 일부일 뿐, 진정한 대화는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며, 이해와 사랑의 크기가 아닌 사심 없는 해후로 마주서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진정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경계선까지 서로 인내하며 노력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간에서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면서도 그 행함에 있어서는 진실의 주위만을 맴도는 몸짓으로 밖에는 존재하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가득하다. 함께 생활하면서 오히려 삶의 일깨움에 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옆에 할 수 있기를. 금년 한 해는 말이없어도 사랑이 넘치는 공간의 향기가 에바다부의 아름다운 또다른 언어가 되어 서로 평화를 가꾸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끊이지 않을 찬양에 대한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노래하는 백성들 헵시바(Hephzibah)의 회장인 박종성 형제(대학부)이다.

88년 홍해작전 때 찬양 인도를 목적으로 조직된 헵시바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서 찬양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89년도에 조직을 새롭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찬양 훈련을 해오고 있다.

현재 찬양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을 본부팀이 40여명, 대학부, 청년부 헵시바가 각각 20여명 정도.

본부 헵시바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30분

에 할렐루야 홀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데 1차 과정인 20주 훈련을 이미 마치고 2차 과정인 시편 찬양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학부와 청년부의 헵시바는 주일 오후에 모여 20주 찬양 훈련을 하고 있다.

■ 탐방 - 헵시바

하나님의 노래하는 백성들

회원들은 한 주간 동안 찬양과 말씀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비친 한 몸종의 조화를 받으면서도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며 기쁨 충만을 주었던 다윗처럼, 비파

와 수금 대신 기타와 트럼펫을 연주하고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외국곡도 번역하여 함께 익히고 교회음악을 분류하고 찬양예배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찬양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찬양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노래하는 백성들간에 찬양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가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혼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바로 드려지는 찬양을 위해 기도하고 훈련받는 헵시바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 겨울 계절 학교를 다녀와서

회개의 역사 체험한 수련회

노 애 리 (고등부)

작년 방학에 어머니를 따라 어느 조그만 기도원에 갔었다. 그때 그 기도원에서 나는 내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과만 대화할 수 있고 나와 주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두려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엇갈리는 가운데 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그후로 주님께 여러가지를 기도했지만 진정한 회

개 할 회개의 기도가 나에게 없었다. 이번 고등부 겨울 계절학교를 통해 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밤 애찬식 때였다. 나도 모르게 졸다가 깨어보니 옆에 친구들 모두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목이 쉬어라 부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뭐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같이 찬송을 불렀다. 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평상시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이 답답함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통곡하듯이 울어댔다.

‘주님, 주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좋은 찬양을 주셨지만 저는 그저 그것을 좋아할 뿐 주님께 저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그 때부터 주님을 알고난 후 2년동안 막혀있던 회개의 기도가 터졌다. 나는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나의 생활 하나하나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종으로 오신 주님을 닮자

이 응 산 장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작년 가을의 일이다. 목회자세미나 종강을 며칠 앞두고 원근 각지에서 오신 교역자님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는 권사님들의 소망은 간절했으나 2천여 명을 동시에 대접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하여 안타까워하였다. 백가지 의견과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묘책이 없어 고민하던 중 마침 우리 교회 정 도 집사가 사용년수가 15년인 김비산 조리 기구를 15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여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다. 그래서 여러 권사님들과 정

집사님이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요리하여 모든 교역자님들께 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기개의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무상으로 빌려준 집사의 정성을 보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한 월요일마다 열리는 목회자세미나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집사님들, 단정한 한복차림의 여전도회 회원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직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산 증인들이시다. 이 헌신과 봉사는 홍해작전 때를 위시하여 여러교작전, 시온성대행진, 복음화원 통일조국을 위한 전진대회, 제자훈련 등 모든 행사 때마다 유감없이 발휘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 왔다.

1990년도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잘 훈련된 섬김의 본을 세계 교회를 향한 섬김의 기회로 가지게 되었다. 오는 8월에 열리게 되는 아시아선교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공동주관하여 5일간 열리게 되는데 모든 준비와 진행하는 일에 충현의 성도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 중대한 임무를 부여 받은 충현 가족은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집, 충현복지마을, 세계선교원 건립을 비롯하여 각 위원회별로 여러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는가를 자문자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향하여 절대충성 절대헌신을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고자 아니한다면 초라해진 후일의 내 모습을 어떻게 보겠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는 오직 기도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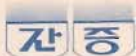
“오 주여 이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한 신자가 되어 교회가 명령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여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만 닮게 하옵소서.”

다음호 세기동은 박철훈 장로님께 부탁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일은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나는 하나님께 “자립하여 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성수 주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 기도를 했다. 개인 사업장이 직장인 나는 첫째, 셋째 주일만 쉬었으므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늘 이 날이 기다려졌다.

하루는 나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내 가정을 바라보니 점점 생활비는 많아지는데 월급은 제자리만 지키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많아질 것이 거울을 보듯 뻔하였다. 인생의 깊은 고뇌에 빠진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득해졌다. 몇개월이 지나면 방세도 올려달라고 할 텐데 가진 것이 없는 나는 또 방세가 쉰 곳을 찾아 이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닥칠 것을 생각하니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설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경제적인 고통은 떠나지를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답답한 심정으로 모처럼 친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 그 친구는 내 얘기를 듣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이시는데 산 목숨에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위로를 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내 귀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 생각 끝에 나는 아내에게 직장에 다녀도 성수 주일도 못하고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해 생활하기 어려우니 직장을 그만두고 쉬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내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얼마 안되는 월급이지만 그나마도 수입이 없으면



고난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

김 춘 권 집사



어찌 되겠느냐라고 걱정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다. 나는 아내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었다.

직장을 그만둔 후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 막상 갈 곳이 없었다. 집에만 있자니 어린 두 아들이 회사에 안가시느냐고 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갈 곳도 없는 나는 그대로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목적지도 없이 집을 나와 여기저기 헤메고 다녔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라고 하나님께 물어 보았지만 회답은 없었다.

내 자신도 모르게 몸은 아위어지고 가정에는 먹구름이 떠나지 아니했다. 교회에 나가 예배는 드렸지만 근심과 걱정은 떠나지 아니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나의 귓전을 울렸지만 예전처럼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를 못했다. 이러한 상태로 2개월을 지내고 보니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연탄도 외상이요, 쌀도 외상 신세가 되었고, 아내와의 언쟁도 잦아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기 힘들었던 고통은 어린 자식들에게 먹일 것을 제대로 못먹이는 것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시 직장을 나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가구점 영업

부로 다시 출근하게 되었다. 출근하기로 결정한 것을 아내에게 알렸더니 그렇게도 좋아할 수가 없었다. 집사람은 나에게 월급이 적든 많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갈 테니 염려 말고 직장에 충실하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내 마음에는 삶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점점 늘어나는 교육비, 생활비, 교통비, 놀면서 빌려 쓴 빚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까지 했다. 이러한 일들을 어찌해야 될지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께 나아가 의논하기로 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신앙의 용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빌려서라도 가구점을 시작하기로 하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보라고 했다. 아내는 직장생활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것 같으니 알아보겠다고 했고, 나는 기도원으로 출발했다. 기도원에서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랬더니 마음의 염려는 평안으로 바뀌고, 근심과 걱정도 확신과 자신감으로 차올랐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집

에 돌아온 나는 집사람에게 돈을 빌려 보았느냐고 했더니 약 300만원정도 빌릴 수 있었다고 했다. 나는 이 말에 더욱 자신을 얻고 가게를 구해서 가구점을 차리기로 했다. 우리 부부는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영업장 상호를 영광가구로 하기로 정하고 가게를 구하려 다녔는데 여호와 아래의 하나님께서는 가게를 바로 구할 수 있게 하셨다. 자본이 적은 우리는 보증금을 적게 주고 월세는 많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18평 짜리 가게를 얻었다. 조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른다. 또한 나는 이대로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 결과 직원도 없이 시작한 영광가구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고객을 많이 보내 주셔서 힘드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그렇게도 원했던 성수주일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도 시원할 수 없었다. 십일조와 감사헌금도 정성과 기쁨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개업예배 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창대케 해주셨는데 18평 영업장이 150평으로 변하고 부부가 시작한 영업장이 7명의 직원을 갖게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남의 집에서 살방살이를 하던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셨다. 그때의 신앙의 용단을 아니했었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민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다.

남여전도회 각 지회 회장

●바울전도회

- 1 지회: 이규선 집사, 2 지회: 최차용 집사
3 지회: 이석영 집사, 4 지회: 이혜영 집사
5 지회: 이봉옥 집사, 6 지회: 이배근 집사
7 지회: 박인건 집사, 8 지회: 서길원 집사
9 지회: 오석부 집사, 10 지회: 김용도 집사
11 지회: 김여순 집사, 12 지회: 김민환 집사
13 지회: 한일연 집사, 14 지회: 김점석 집사

●베드로전도회

- 1 지회: 최종식 집사, 2 지회: 박미련 집사
3 지회: 임무현 집사, 4 지회: 김대호 집사
5 지회: 이갑재 집사, 6 지회: 강철형 집사
7 지회: 배준식 집사, 8 지회: 김태영 집사
9 지회: 이태식 집사, 10 지회: 권영학 집사
11 지회: 전홍열 집사, 12 지회: 박종규 집사
13 지회: 손기현 집사, 14 지회: 나희주 집사

●요한전도회

- 1 지회: 김유찬 집사, 2 지회: 현형철 집사

- 3 지회: 안석현 집사, 4 지회: 권명옥 집사

- 5 지회: 양병진 집사, 6 지회: 김중선 집사

- 7 지회: 김정필 집사, 8 지회: 김창기 집사

- 9 지회: 김재철 집사, 10 지회: 김용대 집사

- 11 지회: 박동업 집사, 12 지회: 장유채 집사

- 13 지회: 이홍우 집사, 14 지회: 석영식 집사

●한나전도회

- 1 지회: 정봉조 집사, 2 지회: 조종원 집사

- 3 지회: 백주심 집사, 4 지회: 방계운 집사

- 5 지회: 김정은 집사, 6 지회: 공향조 집사

- 7 지회: 백인수 집사, 8 지회: 윤정덕 집사

- 9 지회: 오채번 집사, 10 지회: 자숙원 집사

- 11 지회: 한병희 집사, 12 지회: 김중복 집사

- 13 지회: 이의복 집사, 14 지회: 지영실 집사

●에스다전도회

- 1 지회: 홍해숙 집사, 2 지회: 정경자 집사

- 3 지회: 전영옥 집사, 4 지회: 민건식 집사

- 5 지회: 김선희 집사, 6 지회: 이수덕 집사

- 7 지회: 조 숙 집사, 8 지회: 원길자 집사

- 9 지회: 염미숙 집사, 10 지회: 임옥숙 집사

- 11 지회: 우순성 집사, 12 지회: 산옥숙 집사

- 13 지회: 박옥석 집사, 14 지회: 이혜숙 집사

●루디아전도회

- 1 지회: 최경희 집사, 2 지회: 정경혜 집사

- 3 지회: 정경금 집사, 4 지회: 한영자 집사

- 5 지회: 이경호 집사, 6 지회: 한숙정 집사

- 7 지회: 유재춘 집사, 8 지회: 장운대 집사

- 9 지회: 임선영 집사, 10 지회: 임선애 집사

- 11 지회: 김은심 집사, 12 지회: 최인영 집사

- 13 지회: 유호순 집사, 14 지회: 오화자 집사

●마리아전도회

- 1 지회: 한광숙 집사, 2 지회: 남양희 집사

- 3 지회: 김승옥 집사, 4 지회: 주경자 집사

- 5 지회: 이향숙 집사, 6 지회: 김선자 집사

- 7 지회: 전은실 집사, 8 지회: 아메나 집사

- 9 지회: 박애희 집사, 10 지회: 김숙희 집사

- 11 지회: 김경희 집사, 12 지회: 이계자 집사

- 13 지회: 오영선 집사, 14 지회: 김순희 집사

교회 갱신과 성장 위한 제4회 목회자 세미나

- ◆ 주 제: 복음전도와 사회봉사
- ◆ 기 간: 1990. 2. 12 ~ 4. 16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20분
- ◆ 장 소: 충현교회 본당
- ◆ 수강대상: 전국 목회자
-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 2. 12일까지
- ◆ 제출서류: 본인 소정양식의 원서
- ◆ 접 수 처: 충현교회 내 한국교회성장연구원

◆제4학기 세미나 프로그램

일 자	제 1 교 시	제 2 교 시
2월 12일	요한복음신학 이종윤 목사	아시아 선교의 현재와 전망
19일		전재욱 교수
26일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
3월 5일		손봉호 교수
12일	복음의 성경적 이해	복음의 성경적 이해
19일		박형용 교수
26일		전도설교의 설계
3월 5일		김준곤 목사
12일	전도와 제자훈련	전도와 제자훈련
19일		박영철 교수
26일		교회의 사회사업과 구제사업
3월 5일		성규탁 교수
12일	심포지움: 교회와 국가	
4월 2일	요한복음신학 이종윤 목사	전호진 교수
9일		개교회의 전도와 선교전략
16일		김홍도 목사
		목회(교회)와 지역사회
		신예철 목사

(시104:24, 시145:17; 사28:29; 마10:29~31; 히1:3).

설 명

섭리란 창조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추신 계획에 의하여 주관되어 진다. 하늘과 땅과 무생물들뿐 아니라 인간들의 계획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되어 그가 정해 놓으신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움직인다. 마치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만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마10:29).

질 문

1. 인생의 진로는 결국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잠16:9, 20:24, 램10:23)?
2.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롬8:28)?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7 과 하나님의 섭리

성 경 : 시 103:19

요 절 :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씨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16:4)

찬 송 : 434, 442

제11문 :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써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